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김 완 석[†] 차 주 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지금까지의 신체이미지 관련연구들이 1) 주로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2) 주로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 신체에 대한 평가와 지각 자체가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에 대한 더욱 기본적인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며, 2) 이런 측정치들을 대부분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 소비행동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탐색적으로 개발한 신체가치 척도들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수용할만한 수준이었고, 신체관련 소비행동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와 신체가치 척도를 완성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신체가치, 신체이미지, 신체존중감, 신체관련 소비행동

[†] 교신저자 : 김완석, wsgim@ajou.ac.kr

신체(body)란 무엇인가? 단순한 생물체로서 물질의 집합인가? 분명히 무게와 색과 질감을 가지고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정시간 동안 존재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고장나서 없어지는 물질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이런 생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신체는 개인이 구체화한 것이며(Human body is the embodiment of person.),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해내는 수단이다(Harre, 1991).

몸에 대한 생각 즉, 신체개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몸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몸은 하나의 실체로서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으로서 ‘자기’라는 생각은 자기의 몸이 하나의 물질로서 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토대로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라는 생각은 자신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몸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생각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나 하등동물과 달리 의도와 목적을 갖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자(agent)적 존재이다. 이런 의도와 목적에 의해 지향성을 가진 행위들은 생물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이 의존하는 결정론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합리성의 원리에 의한다(이정모, 1997).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다루는 모든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몸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전통이 강했던 심리학

에서는 역사적으로 몸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탐구하는데 집중했으며,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몸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적 활동(행위)에만 집중했지 몸 자체에 대한 인식과 몸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표현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문화심리학자인 Harre(1991)는 신체개념(body concepts)이 자기개념 또는 자기 이미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신체개념은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체형(bodily form)과 체기능(bodily function)이 인간의 모든 종류의 공적 사적 평가와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개념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몸이나 또는 타인의 몸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체개념은 몸을 이용한 자기표현과 의사소통방식(몸짓, 손짓, 자세, 걸음걸이 등)이나 옷을 입는 방식, 음식물 섭취, 자살에 대한 생각, 화장과 성형, 운동, 장기기증, 노화에 대한 생각 등 삶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 ‘자기(self)’개념에 관한 연구들도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또는 지각과 평가)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자기개념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혔을 뿐,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즉 신체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심리학에서 신체개념을 가장 널리 다룬 분야는 임상 및 상담분야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주로 신체이미지 또는 신체존중감이라는 개념을 대인관계의 문제(Kleck, & Strenta, 1980; Neklek, 1999), 자기존중감(Franzoi & Shields, 1984), 섭식장애(Garner, 2002; Stice, 2002), 성기

능 장애(Wierderman, 2002) 등의 연구에 적용하였다.

아마도 몸 자체를 탐구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분야는 생물학과 해부학을 기초로 한 의료 분야일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사고나 유전,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모와 기능의 변화에 관한 병리적 관점의 연구에서 시작해서, 심리적 문제인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이러한 병리적 변화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체이미지의 문제는 종양학, 신체 재활학, 산과학, 부인과학, 비뇨기학, 내분비학, 치과학, 피부과학은 물론이고 HIV와 AIDS 환자를 치료하는 맥락을 포함하는 수많은 의학 전문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문제(Pruzinsky, & Cash, 2002)로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또 다른 분야는 여성주의 이론들과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채용해서 주로 여성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의 형성과정과 그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오상화, 나은영, 2002; 최경숙, 2000; Bartky, 1988; Spitzack, 1990). 이들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대중매체의 내용들이 여성들의 하여금 부정적인 신체경험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부정적 신체이미지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주로 미국의 주류 백인여성들에서 관찰되는 비만과 섭식장애 등에 대한 설명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과학과 의류학 분야에서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개념들이 비교적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 가정학, 심리학과 보건의료분야 등에서도 신체이미지와 관련 개념들을 일부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다(예들 들어, 심정은, 고애란, 1997; 이경화,

류은정, 2001; 이승희, Rudd, 김재숙, 2001; 정명선, 2003; 황진숙, 2000; 김병준, 2001 등).¹⁾

앞서 말한 것처럼 심리학적 의미에서 몸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자기개념의 일부로서 신체이미지와 신체존중감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병리적 또는 부적응적인 심리적 행동적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다. 예컨대, 신체이미지에 관해 많은 저술을 했고, 2004년 창간된 학술지인 "Body Image"의 편집장인 Cash는 그동안의 신체이미지 연구에 대해 "1990년대는 신체이미지라는 학문의 진화에서 핵심적인 시기이다. -중략- 섭식장애와 비만에 대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관심의 발아를 반영하는 이들의 작업은 신체이미지 장애의 평가와 치료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을 상당히 향상시켰다.(Pruzinske, & Cash, 2002. p. 5)"고 썼다. 이렇듯, 그동안의 신체연구는 병리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결과들은 신체에 대한 수용과 만족보다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라는 측면에서 기술되었다."(Cash, 2002).

소비자의 자기개념과 신체이미지, 신체관리 행동의 관계를 해석학적으로 연구한 Thompson과 Hirschman(1995)의 주장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의 서구인들은 신체를 자신의 본질적 자기인 비물질적 마음과는 분리된 물질 대상으로 보게 되며, 따라

1) KISS(한국학술정보)를 이용해서 학술지에 실린 국내 논문들을 '신체이미지', '신체존중감', '신체적 자기개념'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각각 23편과 3편, 49편이 검색되었다. 분야를 보면 스포츠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4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48편이 '신체적 자기개념'을 검색어로 했을 때 나온 결과이다. 그 외에 의류/디자인 분야 16편, 가정학분야 3편, 보건/의료 2편, 심리 2편 등이었다.

서 신체를 하나의 물적 대상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열망이 개인사고와 행동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 특히 의복과 같은 특정 상품이나 다이어트나 운동 프로그램, 건강식품의 소비 같은 신체관련 소비의 동기를 일으킨다. 실제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몸매관리 장비와 서비스, 성형수술, 건강식품 등은 명백하게 신체관리를 위해 소비되는 상품들로서 그 시장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이 같은 신체와 관련한 소비행동은 병리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런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은 소비행동은 병리적이 아닌 정상적인 행동들이다. 최근에는 이 분야에도 긍정심리학 운동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85년에 30,000명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를 측정하는 전국조사(National Body Image Survey)가 이루어질 정도로(Cash, Winstead, & Janda, 1985) 큰 관심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며, 소비행동에 관한 신체관련 개념들의 유용성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의 인지 및 정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소비행동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태도, 평가, 가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개념을 가치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신체가치와 하위 차원

여기서는 신체가치를 ‘신체의 개인적 사회

적 의미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서, 신체의 의미에 대한 학습 가능한 일련의 가치’로 잠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신체가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며, 따라서 시대와 문화, 또 개인에 따라 그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체가치는 일종의 가치관으로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경험에 의해 다소 빨리 변화하도록 촉진될 수는 있어도, 하루나 이틀 또는 1년이나 2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체와 관련된 개념은 매우 많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으로 신체이미지(body-image)와 신체존중감(body esteem)이 있다. 신체 이미지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개념화했지만, 그것이 다차원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것 외에는 합의할만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 Thompson과 그의 동료들은(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은 신체이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바, 이는 연구자와 상황에 따라서 신체이미지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혼란을 지적하면서, 신체만족, 외모평가, 외모만족, 신체왜곡, 신체스키마, 신체지각 등 무려 16개의 정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어들의 혼란은 이 분야 연구의 특징이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Pruzinsky & Cash, 2002). 이에 관해 성영신, 박은아와 우석봉(1999)은 신체이미지란 “신체모습과 신체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신체에 대한 총체적인 태도와 생각, 감정”이라는 정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의는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신체이미지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어서 신체이미지가 다차원적 특성을 갖는다는 기존의

합의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총체적인’이라는 의미를 ‘전반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정의는 신체이미지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overall) 인지(생각과 평가적 판단)와 감정이라는 차원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의 외모특성을 다루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예컨대 신체만족, 외모평가, 신체지각 등 다양한 신체이미지의 측면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를 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Harre(1991)가 지적했듯이 체형(즉 외모) 뿐 아니라 체기능(즉 건강)도 개인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규범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체기능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이미지 연구들은 체기능에 대한 지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란 어떤 개념어를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최소한 신체의 외모에 관한 체형 차원(신체의 외적 특성, 크기, 형태 등에 대한 지각) 외에 신체의 기능차원인 체기능 차원(근육과 내장기관의 적절한 작용을 토대로 하는 건강 등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김완석, 김해진, 2005). 이와 관련해서 Cash, Winstead, & Janda(1986)와 Franzoi, & Herzog(1986) 등도 신체이미지가 능력과 기능, 외모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이 중 외모는 크기와 형태에 대한 지각과 평가로 세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은아, 2000. 재인용).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 이용된 신체존중감이란 특히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평가’라는 특수한 형태의 신체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평가는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지각이 인지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감정적인 요소를 반영하며, 이 두 요소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신체가 ‘비만하다’고 지각하면(실제로는 평균적인 비만도에 비해 같거나 작더라도), 이런 지각은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싫다’거나 ‘부끄럽다’고 느끼는 부정적 평가를 낳을 수 있다.

그렇듯, 신체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아니든 신체만족/불만족, 외모평가, 신체존중감 등의 용어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신체개념을 주로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지각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또한 신체의 기능보다는 신체의 외적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같은 지각과 평가의 수준에서 신체이미지와 신체존중감은 자기 개념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 외부적 영향(예컨대 대량매체를 통한 사회적 정보)이나 상황(예컨대 신체에 관심을 더 많이 두도록 만드는 외부자극)에 의해 비교적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부정적인 신체인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과도하게 날씬하거나 마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량매체의 영향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Cash(2002)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맥락과 같은 실험적 상황조작에 의해 매우 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반해 신체가치란 신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여러 가지 기본가정들(basic assumptions)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체이미지보다 더욱 핵심적인 인식이다. 신체에 관한 기본적인 가정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

계, 신체와 정신의 관계, 신체의 기원, 여성과 남성의 차이 등에 관한 종교적 이념적 철학적 가정들, 그리고 사회 지배계급의 지배윤리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가정들은 일종의 믿음의 형태로 존재하며, 신체의 의미에 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등의 평가적이고 당위적인 신념인 신체가치를 낳게 된다.

이러한 기본가정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수준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신체의 의미에 관한 기본가정들을 바탕으로 하는 조금 더 얇은 수준의 그래서 의식될 수 있는 신체관련 가치들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런 가치들을 신체가치로 정의한 바 있다.

신체조작성. 신체조작성이란 신체에 대한 자의적 변형가능성에 대한 당위적 신념을 뜻한다. 이는 신체의 소유성 즉 신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부모나 신 또는 자연의 창조물로 인식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특징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하는 신념이다. 즉, 신체를 타고난 것으로서 본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연(또는 조상이나 신)에 속한 것이라고 보는 자연주의적(또는 종교적) 관점과 신체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고치고 수리해서 잘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는 기계론적 관점의 차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특히 자연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을 인간

을 위해 개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몸은 하느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출산은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닮은 육체로 환생하는 과정의 상징적 모형이다. 여성은 남성을 위해 창조된 것이어서 여성은 남성에게 봉사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정신(또는 영혼)과 분리 가능한 것이며, 주로 타락한 욕구, 사악한 욕망이 머무는 사사로운 비합리성의 공간이다. 그래서 몸은 신성한 정신의 계발을 위해 통제하고 금지해야 할 대상이었다.²⁾ 여성의 몸은 더더욱 죄악스러운 것이다. 여성은 본디 하느님의 피조물이자 예수의 형상인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남자를 유혹해서 하느님을 배반하고 동물적인 존재로 만드는 사악한 존재이다. 기독교에서 여성을 배신하는 인간이자 남성을 타락시키는 인간으로 묘사하게 되면서,

2) 신체를 혼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본 것은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주장한다. 모름지기 자기를 닦고 다스리는 것이 사회적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었다. 수신은 개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신수양이다. 정신수양을 위해서 몸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 마음(理, 性, 明德)을 닦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사람에 따라 질적으로 차이있게 타고 태어나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가능한 기질(氣質) 또는 기품(氣稟)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심(人欲, 命)이다.¹⁾ 인간은 기질에서 차이가 있는 데, 이런 상태에서 몸의 오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에 휘둘리게 되면 마음을 닦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종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눈, 코, 귀, 입, 사지의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경(敬)이다. 경은 매사에 자신의 몸가짐을 살피고 삼가 조신하게 행동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는 생활 신조였다(김성태, 1990).

여성성은 인간존재의 어두운 측면과 관련지어졌다. 기독교 전통에서 남성은 정신 및 이성 과 연결된 바람직한 존재인 반면, 여성은 육체 및 감성과 연결되어 통제되고 소외되었다 (Turner, 1991; McKinley, 2002).

그러나, 구원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것이다(Tuner, 1996).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혔거나 또는 이런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의 징표이다. 죽음이란 신체를 땅에 두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 영혼은 하느님 나라가 땅에 다시 건설될 때, 두고 온 신체와 결합되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교리에 따르면, 죽은 몸은 나중에 부활한 영혼이 깃드는 집이 되기 때문에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면 안되며, 남을 위해 요리하거나 자신이 먹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유교에서 신체란 부모가 물려준 것이며, 부모의 또 다른 체현이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신체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무엇이지 그 자체나 일부를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신체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의 신체에 별을 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죽는 동반자살(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은 자살을 죄악으로 간주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1895년(고종 32) 11월 고종의 조칙으로 내린 단발령은 조선사람들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고, 결국 을미의병이라는 민중적 항쟁을 낳은 한

계기가 되었다. 저항의 가장 큰 이유는 “신체 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즉,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훼손하지 않는 것은 효의 시작이라는 말 그대로,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단발령을 내린 표면적 이유는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달구넷. <http://www.dalgu.net/55815/w-11.htm>).

유학의 전통에서 신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었다. 사회적 관계의 첫 대상은 부모이고, 부모에 대한 효는 그 관계에서 핵심적인 마음가짐이었다. 그리고 효의 시작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며 부모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몸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신체특성인 체형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체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할 이유가 없었다. 그보다는 체형에 관계없이 사회적 존재로 드러내는 치장이나 행동규범, 즉, 상황에 맞추어 의관을 갖추는 것, 또한 신분이나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양반이 뛰지 않는다거나, 걸을 때 팔을 휘젓지 않는다거나,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적절히 가린다거나 하는), 다시 말하면 신체 다루기의 예절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체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한복에도 그대로 스며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오늘날 널리 성행하는 성형수술(안면성형술, 유방확대술, 키를 늘리기 위한 수술, 지방제거술 등)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첨가해서 원하

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으로서, 과거의 유교적 신체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들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신체조작성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신체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정불변의 것 또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제외한 어떠한 인공적 개조도 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신체관의 대상이 아니다. 몸은 단순히 마음을 담은 그릇도 아니고, 마음을 가꾸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정체성, 특히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태어난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기 모습을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투사된 이상적 자기정체의 모형(model)을 따라 몸의 형태와 크기 등을 고치고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즉, 몸은 더 이상 개인의 생물적 제약으로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self)의 발현체로서 적극적 관리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신체통제감이 있다. 신체통제감은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예를 들면, 자신의 힘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는가, 외모를 더 낮게 할 수 있는가 등)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대한 통제가능성 대한 일종의 효능감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신체의 특징을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될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통제해서는 안되는 대상으로 보는가를 뜻하는 신체조작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McKinley와 Hyde(1996)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과 여성학의 관점을 토대로 객체화 신체 의식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OBC)를 제안했는데, 그 하위척도에 신체통제신념척도가 있다. 이 척도가 측정하려는 개념은 신체에 대한 통제감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외모(체중이나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를 통제하

고자 할 때,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신체편향성. 신체편향성은 신체의 기능(체 기능)과 외양(체형)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즉 잘 작동하는 유기체로서 신체의 기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외양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가의 상대적 중요성 의식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특성 즉 외모나 체형에 더 가치를 두는 반면, 반대로 신체 내부의 특성 즉 내장기관을 비롯한 신체 장기와 근육들의 원활한 기능 즉 건강이나 체기능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 종교와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보면,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외모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외모를 비롯한 신체특성은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이나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건강은 외모에 비해 더 중요했다. 특히 건강한 마음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건강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외모는 사악한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며 따라서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감추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이런 가치는 지금은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한다(김완석, 김철민, 2002).

병리적 관점의 많은 신체이미지 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자기 신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워 하며, 이러

한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여러 가지 병리적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8살 아동들에서도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신의 신체특성에 대한 왜곡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on, Stewart, White, & Yore-Crowe, 2002).

신체가치의 편향성과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으로 신체존중감이나 신체불만족을 들 수 있는데, 신체불만족이나 존중감은 자신의 신체기능 중에서 주로 체형 또는 외모에 대한 평가적 신념이나 태도를 뜻한다. 이에 비하면 신체편향성은 체기능과 체형 중 어떤 쪽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다. 또 다른 개념으로 신체 의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평소에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얼마나 의식하는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체형과 체기능의 가치에 대한 편향성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신체편향성이라는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체형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 많이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McKinley와 Hyde(1996)가 제안한 객체화신체의식(OBC) 척도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신체수치심척도는 체형중심의 신체존중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신체가치의 편향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척도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신체가꾸기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일종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조장하며,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커진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내면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은 건강에 관한 것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신체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과 불

만의 표상이다.

신체조작성과 가치편향성은 서로 관계가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이다. 예컨대 인간의 신체를 조작해도 될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외모 보다는 체기능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체를 조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해도 외모를 위한 성형수술은 거절하지만 건강을 위한 개복수술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질병의 분류(어떤 것을 질병으로 보는가), 건강과 아름다움의 의미(어떤 것을 건강한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하는가), 섭식과 운동의 의미(왜 특정음식이나 특정 운동을 선호하고 기피하는가), 화장과 성형에 대한 수용성(화장과 성형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노화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런 것으로 보는가 연장 또는 정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 노화와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가 추한 것으로 보는가),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 장기의 판매나 기증에 대한 태도 등 신체의 특성과 신체의 변화,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의식과 태도 뿐아니라 관련 행동들에 대한 개인차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와 관련한 소비행동 분야

Turner(1996)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몸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음식과 운동이라고 주장한다(이런 관점에서 몸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화장과 의복일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

연도	운동	식사조절	담배, 술 절제	보약	목욕, 사우나	기타	아무것도하지 않음	계
1986	11.9	10.9	5.0	7.3	-	0.6	64.3	100.0
1989	9.0	7.0	3.5	6.5	3.1	0.5	70.3	100.0
1992	14.3	11.8	2.8	7.8	6.9	0.5	55.8	100.0
1995	18.1	17.4	5.3	7.6	8.3	0.5	42.7	100.0
1999	21.6	15.4	4.5	4.5	7.6	0.4	46.0	100.0
2003	26.9	12.7	4.1	4.8	4.2	17.6	29.6	100.0

주. 통계청의 부정기 조사이며, 2003년 조사는 이전 조사의 '기타'항목을 수면/휴식, 건강검진과 기타로 세분하여 실시한 바, 전년과의 비교를 위해 통합하여 제시하였슴.

반적으로 수긍할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몸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얼굴이나 체형을 직접 변화시키게 되는 성형이나 지방흡입술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Turner(1996)의 주장은 주장 그대로는 옳은 것이지만, 음식과 운동, 화장과 옷 입기 등의 의미나 거기서 기대하는 효익도 매우 달라졌다.

음식과 건강식품

아마도 음식섭취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유지일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쾌락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음식들은 생물학적으로 오히려 생명유지에 저해되는 것들이 많다. 과다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들, 신체에 해로운 화학약품과 인공합성물을 포함한 음식들이 대량생산을 통해 비교적 싼값으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식품들은 체형과 체기능 유지 모두에 역기능적이다. 비만과 이로 인한 질병의 만연은 대표적인 역기능이다. 날씬함(slim or thin)으로 표현되는 이상적 체형은 이런 식품들과는 상극

이다. 자연식품이나 소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는 당연한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풍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보편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음식섭취 자체를 거부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체형과 체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빠른 시간내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체형과 체기능을 유지하려는 풍조의 확산은 다이어트 보조 식품(약품 포함)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³⁾

다이어트의 주 기능은 체기능보다는 체형의 변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섭취의 통제라는 의미에서 다이어트는 본래 마음을 통제하려는(더 정확하게는 몸의 욕구에 의한 마음의 오염방지) 종교적 수련의 일환으로 간주되

3) 우리 나라의 다이어트 시장은 건강을 위한 비만인의 감량 욕구와 비만하지는 않지만 날씬함을 위한 미용 욕구로 인해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0년동안 고속 성장을 해온 우리 나라의 다이어트 산업은 2000년 1조 원, 2001년에는 1조 4천억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광고산업, 2002).

있다(대부분의 세계적인 종교들은 음식섭취를 포함한 금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섭식통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기개념, 특히 신체적으로 바람직한 성적인 상징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멋진 자기개념(또는 자기이미지)에서 멋진 신체개념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Turner(1991)는 몸에 대한 규제가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소비주의와 패션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보약과 건강식품은 주로 체기능의 강화를 위해 이용되는 것 같다. 연령의 증가와 보약 섭취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관리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보약 섭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운동이나 식사조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화장과 성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장은 주로 여성들이 얼굴을 중심으로 치장하는 행위였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여성하면 얼굴의 아름다움을 떠올린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게 얼굴은 가장 대표적인 신체부위이다. 그만큼 얼굴을 아름답고 젊게 꾸미려는 여성의 욕망은 매우 강한 것 같다.⁴⁾ 최근에는 화장이 여성의 전유물이라

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남성들이 화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⁵⁾

한편, 화장은 전통적으로 얼굴에 집중하는 행위였던 것에서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외모라는 개념이 주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가름하고 작은 얼굴, 길고 가는 팔다리, 큰 키에 날씬한 몸”(김은실,1997), 또는 “쌍꺼풀 진 커다란 눈과 높은 코, 작은 얼굴, 흰 피부, 긴 다리”(최경숙, 2000) 라는 신체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화장이란 생물적 제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기껏해야 건물의 외벽을 치장하는 간접적 개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성형은 생물적 제약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주로 체형을 변화시키려는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다. 화장을 통해 변형시킬 수 있는 얼굴이나 신체 모습은 성형을 통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유창조(2000)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연미를 강조하는 성향과 자신이 바람직하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5) 우리나라 남성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스킨, 로션에 불과했던 남성 제품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상품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성 전용 스킨케어 제품은 지성용 피부관리 제품과 눈가 주름 관리용 ‘아이 트리트먼트’,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딥 클렌징’, 각질 제거와 마사지 효과가 있는 세안제 등 30여종이 출시되어 있는데, 남성용 화장품 시장은 2,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산업, 2002). 2005년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5,000억원으로 추산되어(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간 코스메틱, 2006.1.25)

4) 이는 지난 5년간 국내 화장품 시장의 매출액 추이를 통해서도 예상할 수 있다(96년 19,700억원, 97년 2조원, 98년 18,300억원, 99년 19,640억원, 2000년 21,572억원; 모화장품 회사 내부 자료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IMF체제에서도 화장품 시장의 매출액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각하는 신체형을 구현하려는(성형을 통해)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형수술 후에 가장 만족스러운 경우는 '수술 전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성형수술 했다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경우'이고 가장 불만족스런 경우는 '수술 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성형수술 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경우'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양면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신체개념의 흥미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마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정체성의 흥미를 경험하듯이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신체개념에서 흥미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즉, 과거의 신체개념(신체를 변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남들을 기준으로 신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최근의 신체개념(신체는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는 중요하다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못하는 흥미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장신구의 경우도 과거에 단순히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체 일부를 뚫어서 장신구를 다는 piercing이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다. 특히 귀걸이를 달기 위해 귀를 뚫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배꼽이나 코, 심지어 혀까지 뚫어서 장신구를 다는 행위는 아직은 특수한 집단의 소속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운동

운동의 기능도 체형유지와 체기능유지로 대

별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 두 기능은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체형을 체기능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이 근육을 증가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체형에 해롭다고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헬스클럽을 이용한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관리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한 김은실(2001)은 연구대상인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체조가 근육형의 몸매를 만드는 심한 운동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사례를 보고했다.

한편, 체형 유지와 체기능 유지의 상대적 중요성은 나이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체형보다는 체기능 유지를 더 중시하는 반면에 젊은 이들은 그 반대이다. 학교 주변의 운동시설들(헬스클럽, 수영장 등)에는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신체노출이 심해지는 한 여름 바로 이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체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 운동을 통해 만들고 변형되는 몸매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예컨대, 진정한 바디빌더는 바디빌딩을 건강이나 오락(스포츠)보다는 심미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 즉, 자신의 체형이 불완전한 것이며, 이를 완전한(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바디빌더의 기본 전제이며, 바디빌딩은 아름다운 몸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도구이다(Harre, 1991).

의상과 장신구

의상과 장신구도 체형과 체기능 모두에 기

능한다. 그러나 의상이 체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다. 의상과 장신구는 특히 여성에게는 체기능 보다는 사회적으로 평가된 체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상과 장신구는 체형을 바람직하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체형요소를 가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의상과 장신구는 그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외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구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멋진 또는 예쁜 옷을 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김은실, 1997). 이 경우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상을 소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몸매 자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보다는 많은 경우 몸매는 의상과 장신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몸매 변형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장기 및 시신처리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장기를 기증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장기이식 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매장풍습은 전국토를 묘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사회문제화한지 오래다. 또한 의료과학 실습용으로 필요한 시신을 기증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러 학자들은 우리의 유교적 가치관이 장기 및 시신기증과 화장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을 토대로 내세와 현세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기독교적 내세관에 비해, 현세와 내세의 상호영향관계를 전제로 하며 신체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초혼재생을 통한 조상숭배를 위해 중시하는 유교적 내세관은 장기나 시신기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이누야마 요시유키, 최일호, 한성열, 2001; 이누야마 요시유키, 2005). 일반적으로 유교와 기독교계통에서는 매장을, 불교나 힌두교계통에서는 화장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 배송현동, 2004), 이는 크게는 사생관 또는 죽음관을 반영하는 것이며, 작게는 신체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히 살펴본 신체관련 소비분야는 지금까지는 신체개념과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자기개념과 신념, 태도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신체의 의미에 관한 가치수준의 지각 즉 신체가치가 신체관련 소비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해서 신체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체가치 측정치를 신체관련 소비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도구의 구성

신체가치 척도. 신체가치 척도는 신체조작성 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의 두가지로 구성하였다. 신체조작성 척도는 주저자가 신체조작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두 명의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작성토록 하였다. 신체조작성은 “신체의 특징에 대한 자의적 변형에 대한 당위적 신념, 즉 신체특징의 자연적 변화에 반한 인위적인 조작이나 변형의 바람직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문항과 주저자가 만든 문항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2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두 개의 상반되는 진술문(예를 들면, ① 나의 신체는 부모가(또는 하늘, 신이) 물려주신 것이어서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된다. ②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고쳐도 된다.)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더 가까운 문항을 고르도록 하는 강제선택형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신체편향성척도의 문항으로는 김완석, 김철민(2002)이 사용했던 8문항 외에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은 외모와 건강의 상대적 중요성을 묻는 것으로서, 양극단에 한 쪽은 외모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다른 한쪽은 건강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배치하고, 어느쪽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가를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멋진 몸매를 갖는 것”과 “건강한/튼튼한 신체를 갖는 것”을 양극에 배치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그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다.

신체존중감. 앞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의 신체존중감 척도들은 주로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어서 체기능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외에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도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문항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이 척도는 체형에 대한 존중감을 묻는 4점짜리 9문항과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을

묻는 4점짜리 9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평가소재 척도. 신체평가소재란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자신의 내적 가치관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외부적 관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을 연기하는 배우로 파악한 Goffman(1963)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다루는 것은 언제나 그러한 행위의 사회적 평가나 효과를 의식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비슷하게, 몸을 사회적 계급의 상징으로서 일종의 자본으로 파악한 Broudieu(1973)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자기 신체의 자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다룰 때, 즉 특정 종류의 옷을 입거나 특정 상황에 자신을 두거나 아니면 심지어 특정 음식을 먹는 행위조차도 그러한 행위의 사회적 결과를 의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교사회나 기독교문화에서 신체를 다루는 것은 그것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내면화한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어쨌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나 감정은 자신이 내면화한 당대의 사회적인 규범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 같은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신체평가소재란 이러한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관련 행위들이 자신이 내면화한 종교적 사회적 규범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이루어지는가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8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신체평가소재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은 일부 연구들(예를 들면, McKinley와 Hyde, 1996)에서 사용된 신체의식 척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McKinley와 Hyde(1996)가 제안한 OBC 척도의 하위척도인 신체에 대한 주의(surveillance) 척도는 평소에 자신의 신체(주로 외모)가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얼마나 의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평가소재가 외부에 있을수록 신체에 대한 주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신체관련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 경험에 관한 문항들. 사전연구를 통해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목록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한 결과 안면성형, 신체성형, 섭식 및 운동, 의료적 치료의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범주에 속하는 신체관련행동들을 포함하는 총 17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각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의도, 경험여부를 측정하였다.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는 각각의 신체관련 소비행동을 하는 것(예를 들면, “내가 건강식품을 먹는 것”)에 대한 태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고, 행동의도는 각각의 행동에 대한 의도(예를 들면, ”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을 의향이 있다”)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했다. 경험의 경우는 각각의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경험여부를 답하게 했다.

인구통계변수. 주 관심사인 신체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인구통계 변수들을 포함시

표 2. 주요 측정변수 요약

	측정변수	문항수	척도유형	점수범위	비고
신체가치	조작성	8	양분문항	0 - 8	클수록 조작성능하다고 보는 것임
	편향성	10	4점척도	0 - 30	클수록 체형(외모)를, 작을 수록 체기능(건강)을 더 중시하는 것임
신체존중감	체형	8	4점척도	0-24	클수록 긍정적인
	체기능	8	4점척도	0-24	클수록 긍정적인
	신체평가소재	6	4점척도	0-18	클수록 외부소재임
신체관련 소비 영역	안면성형	6	4점척도, 양분문항	0-3, 0-6	
	신체성형	5	4점척도, 양분문항	0-3, 0-5	
	섭식 및 운동	4	4점척도, 양분문항	0-3, 0-4	태도와 의도는 4점척도, 행동경험은 양분문항으로 측정.
	질병치료	2	4점척도, 양분문항	0-3, 0-2	클수록 긍정적인.
	장기기증/이식	2	4점척도, 양분문항	0-3, 0-2	시신기증과 매장, 화장은 경험문항 없음.
	시신기증	1	4점척도, 양분문항	0-3,	
	매장	1	4점척도, 양분문항	0-3,	
	화장	1	4점척도, 양분문항	0-3,	

켰다. 성별과 연령, 결혼여부, 학력, 종교 및 종교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신체가치, 신체존중감, 신체평가소재는 요인분석과 문항분석결과를 마친 후 남은 문항들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결과 참조). 신체관련 소비영역별 태도와 행동의도는 각기 해당되는 문항들의 응답값을 평균하여 각 영역의 측정치로 삼았고, 경험여부의 경우는 양분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경험했다고 해당 영역의 문항들 중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문항의 수를 합해서 각 영역의 행동경험 측정치로 삼았다.

표본의 구성과 특징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상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707개의 응답지를 얻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44명, 남성이 263명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 193명, 20대 217명, 30대 142명, 40대 이상이 155명 이었다.

결 과

신체가치 척도

신체가치 척도는 두 하위 차원인 조작성과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2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22개의 문항을 공통요인분석법과 varimax 직교회전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5개로 나타났다. 어떤 요인들에도 조작성과 편향성의 문항이 섞여서 높은 부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스

크리 검사 결과 두 번째 요인 이후에는 eigen value가 특별히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요인수를 두 개로 지정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은 전체변량의 36%를 설명하며, 모든 문항들은 각기 해당 요인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316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요인구조는 남성표본과 여성표본을 따로 분석했을 때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신체가치 척도의 요인구조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

표 3. 신체가치척도 문항의 요인분석결과

문항번호	여 성		남 성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조작7	.759	.092	.755	.045
조작4	.749	.123	.647	.001
조작9	.709	.054	.624	.169
조작1	.676	.117	.603	.076
조작11	.667	.130	.616	.040
조작6	.645	.078	.638	.091
조작12	.543	.113	.569	.091
조작8	.359	.146	.403	.235
편향8	.164	.743	.133	.744
편향3	.038	.725	.094	.597
편향1	.185	.710	.123	.566
편향9	.155	.601	.236	.456
편향2	.004	.588	.055	.632
편향4	.128	.576	.128	.630
편향7	.124	.523	.165	.570
편향10	.061	.496	.007	.342
편향6	.093	.440	.156	.431
편향5	.085	.392	.033	.573

주. 문항내용은 <부록> 참조

고, 각 하위척도별로 추가적인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각 요인 별로 해당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해당문항을 제거했을 때 나머지 문항들이 이루는 척도의 신뢰도 계수와 변별지수(신체조작성 문항들의 경우)를 계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조작성 척도의 네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조작성 척도(8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남성표본의 경우 .77, 여성표본에서는 .81이었고, 편향성 척도(10문항)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 .76, 여성의 경우 .80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여성표본의 경우가 남성표본의 경우에 비해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은 문항분석 후 남긴 신체가치척도 문항들을 성별에 따라 따로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합산하여 신체가치-조작성(이하 신체조작성으로 표기)의 측정치로 삼았고,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신체가치-편향성(이하 신체편향성으로 표기)의 측정치로 삼았다.

신체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을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척도가 이같은 구조를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고 공통요인 분석법과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요인은 전체변량의 39%를 설명하며,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30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각 표본에서 두 요인 각각에 속하는 문항들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었으나, 두 개의 문항은 각 표본 모두에서 .3 이하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따라서 이들 문항을 제외하고 각 척도별로 추가적인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각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계수와 해당문항을 제거했을 때 나머지 문항들이 이루는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추가로 제거해야할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체형존중감척도(8문항)의 내적합치도는 여성표본에서 .79, 남성에서 .76으로 나타났고, 체기능존중감 척도(8문항)의 경우는 여성이 .83, 남성이 .76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여성표본에서 내적합치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4는 신체존중감 척도의 문항들을 성별로 따로 요인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체형존중감의 측정치로 삼았고, 요인2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체기능존중감의 측정치로 삼았다.

신체평가소재 척도

8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요인이 아니라 6문항과 2문항이 따로 구분되는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다. 문항전체상관과 문항제거시의 내적합치도를 기준으로 두 문항을 제

6) 이 두 문항은 “나는 내가 지금보다 더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다”와 “나는 내 몸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였는데, 두 문항 모두 응답자의 85%이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번호	여 자		남 자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체형존중감	체기능존중감	체형존중감	체기능존중감
3.나는 나의 외모가 자랑스럽다	.774	.094	.781	.117
1.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733	.098	.761	.080
14. 나는 내가 예쁜/멋있는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731	.129	.738	.113
18.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멋있게 보인다	.694	.154	.730	.155
10. 나는 몸무게 때문에 우울하다	.563	.062	.471	.020
16.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547	.125	.422	.244
6. 나의 외모 중에서 바꿔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	.518	.067	.475	.030
12.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503	.164	.414	.230
17. 나는 체력에 자신이 있다	.186	.764	.193	.693
2. 나의 몸은 건강하다	.120	.763	.274	.660
5. 나는 남들에 비해 체력이 좋다	.090	.731	.089	.713
4. 나는 몸이 약한 편이다	.165	.695	.044	.666
11. 내 몸은 보통사람 만큼은 건강하다	.098	.678	.189	.651
13. 나는 현재의 체력에 만족한다	.305	.640	.266	.524
15. 나는 쉽게 질병에 걸리는 타입이다	.044	.571	.066	.556
9. 내 몸에는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다	.031	.532	.048	.364

<p>거하였다. 여섯문항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여성표본에서 .73, 남성표본에서 .66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섯 문항의 응답점수를 합해서 신체평가소재의 측정치로 삼았다.</p> <p>인구통계적 특성과 신체가치</p> <p>표 5는 신체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의 성별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신체조작성의 경우, 척도의 중간 값이 4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 이하로 나타나서 부정적</p>	<p>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20대까지는 중앙치를 넘는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서 20대 이하의 여성들이 신체의 조작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699)=2.354$, n.s.,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F(3, 699)=15.316$, $p<.001$, 연령이 많을수록 자의적 조작에 대해 부정적인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p> <p>신체편향성의 경우, 척도의 중간값이 15점</p>
---	--

표 5. 신체가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M	SD	M	SD	M	SD	M	SD
신체조작성	여성	4.12	2.36	4.09	2.28	3.42	2.26	2.61	2.49
	남성	3.50	2.05	4.06	2.24	3.17	2.14	2.37	2.13
신체편향성	여성	15.32	5.55	14.26	5.09	9.52	5.16	7.43	4.99
	남성	11.38	4.82	10.04	4.39	7.22	5.30	5.78	4.65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체형보다는 체기능을 상대적으로 다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체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1,699)=54.482, p<.001$, 연령이 많을수록 체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3,699)=58.352, p<.00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신체가치의 조작성차원은 특히 종교를 포함하는 문화적 가치를 많이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김완석과 김철민(2002)의 연구에서는 종교생활이 신체가치의 편향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종교가 없는 집단, 기독교나 불교를 믿지만 독실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집단, 기독교나 불교를 믿으며 독실하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신체가치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실한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F(2,704)=14.804, p<.001$, 체기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704)=2.353, p<.10$. 이런 결과는 신체가치가 종교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신체평가소재 및 신체존중감

표 6은 신체평가소재와 신체존중감의 성별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신체평가소재의 경우, 척도의 중간값이 9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신체관련행동의 평가기준을 외부보다는 자기 내부에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699)=.002, n.s$,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외부소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3,699)=21.395, p<.001$.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체존중감의 경우, 체형이나 체기능 모두 중간값이 12점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체형이나 체기능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체형존중감, $F(1,699)=13.717, p<.001$, 이나 체기능 존중감, $F(1,699)=29.146, p<.001$, 이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체형존중감의 경우는 차이가 없으나, 체기능 존중감은 1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3,699)=7.011, p<.001$.⁷⁾

7) 신체이미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연구결과들은 여대생들이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체형존중

표 6. 신체평가소재와 신체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10대		20대		30대		40대	
		M	SD	M	SD	M	SD	M	SD
신체평가소재	여성	9.80	2.59	9.04	2.41	7.55	2.26	7.32	2.42
	남성	9.36	2.17	8.51	2.48	8.09	2.26	7.72	2.36
신체 존중감	체형 여성	21.35	3.90	21.27	3.58	20.79	2.74	20.16	3.10
	남성	21.74	3.90	21.88	3.00	21.88	3.08	22.07	2.64
존중감 체기능존 중감	여성	18.89	3.70	20.39	3.14	20.40	2.48	19.77	2.67
	남성	20.21	3.65	21.70	3.20	21.55	2.87	21.48	2.77

신체가치와 신체평가소재,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

신체가치의 조작성과 편향성 차원은 두 표본 모두에서 .3정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서 신체를 조작가능한 것으로 볼수록 체형이나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

조작성과 신체편향성은 두 표본 모두에서 신체평가소재와는 유의미한 정상관이 있으며, 신체존중감과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역상관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표본에서 신체조작성은 체기능 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분야의 외국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예상가능한 것이다. 즉, 신체를 조작가능한 것으로 볼수록, 또 체형을 중시할수록 신체평가의 소재가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체존중감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특이한 것은 신체 조작성과 편향성, 신체평가소재가 체기능 존중감과 역상관의 경향이 있으며, 여성표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신체를 조작해도 되는 것으로 볼수록, 외모나 체형을 중시할 수록, 신체평가소재가 외부에 있을수록 체형존중감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평가소재가 체형존중감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체기능 존중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재학생, 기타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남녀 각 세 개씩 여섯 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신체존중감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여고생집단(n=151)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신체조작성과 편향성, 신체평가소재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체기능존중감과 체형존중감의 평균값은 가장 낮았다. 즉, 본 연구의 집단 중에는 여고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에 대한 자의적 통제에 가장 긍정적이며, 외모를 가장 중시하며, 신체에 관해 타인의 눈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자신의 체형과 체기능에 대해 가장 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여대생의 경우는 다른 집단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아서(n=84) 단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표 9. 소비범주별 태도와 의도, 경험의 신체편향성 집단별 평균 및 변량분석결과 요약

	집단 구분	안면성형	신체성형	섭식운동	질병성형 /치료	장기기증 /이식	시신기증	매장	화장
태도	고외모	2.49	1.97	3.07	3.03	2.85	2.11	2.64	2.93
	중외모	2.26	1.88	2.96	3.10	2.92	2.35	2.61	2.93
	저외모	2.19	1.84	2.88	2.96	2.91	2.54	2.62	2.89
	F 값	8.817 ^{***}	n.s.	4.099 [*]	2.337 [*]	n.s.	8.841 ^{***}	n.s.	n.s.
의도	고외모	2.26	1.90	3.06	2.91	2.69	2.14	2.66	2.86
	중외모	2.07	1.77	2.89	2.83	2.70	2.25	2.61	2.86
	저외모	1.90	1.71	2.82	2.77	2.81	2.49	2.66	2.82
	F 값	9.989 ^{***}	2.716 [*]	7.327 ^{***}	n.s.	n.s.	6.637 ^{***}	n.s.	n.s.
경험	고외모	.62	.36	2.05	.32				
	중외모	.63	.29	2.16	.49				
	저외모	.40	.15	1.90	.49				
	F 값	4.836 ^{**}	3.901 [*]	n.s.	3.045 [*]				

주. ***, p<.001, **, p<.01, *, p<.1

집단별 결과이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체를 조작해도 된다고 믿는 경향의 개인차는 다양한 신체관련 소비나 행위에 대한 태도나 의도, 행동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를 자의적으로 조작한다고 믿는 경향이 심할수록 안면성형과 신체성형, 신체조작을 위한 섭식과 운동, 질병치료를 위한 성형, 시신을 화장하는 것 등에 대한 태도가 더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장기이식이나 기증, 시신의 기증, 매장에 대한 태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슷하게, 의도에 관해서도 안면성형이나 신체성형, 신체조작을 위한 섭식과 운동, 질병치료를 위한 성형 등에서도 신체조작성이 강할수록 더 강한 의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장기기증이나 이식, 시신기증, 매장이나 화장에 대한 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경험을 살펴보면, 신체조작성이 강할수록 신체성형이나 섭식운동의 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편향성도 신체관련 소비의 태도와 의도,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모중시성향이 강할수록 안면성형과 섭식운동, 질병치료를 위한 성형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시신기증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중시성향이 강할수록 안면성형과 신체성형, 섭식운동의 의도가 더 크며, 시신기증 의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율의 경우는 외모중시성향이 강한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안면성형, 신체성형

의 경험율이 더 높으며, 질병치료를 위한 성형의 경험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논의

신체가치 척도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개발한 신체가치 척도는 그 요인구조와 신뢰도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가치 중 조작성 차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향성 차원은 성별과 연령 모두에서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체형을 더 중시하며 연령이 적을수록 체형을 체기능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종교적으로 독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체형보다는 체기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가치 척도는 신체평가의 소재와 신체 존중감과도 유의미하지만 크지 않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척도가 측정하는 개념이 신체평가의 소재나 신체 존중감과 다른 것이면서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가치 척도가 내적합치도로 측정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면에서 일단 받아들일 만한 심리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신체가치에 따른 소비관련 행동영역들에 대한 태도와 의도 및 행동경험의 차이도 비교적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비관련 행동영역들에 대한 태도와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신체가치와 신체평가소재, 신체존중감을 예언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 남성표본이나 여성표본 모두에서 대부분의 종속변수에 대해 신체가치 중 특히 조작성 차원이 가장 예언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가치라는 개념이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평가소재 척도에 관한 분석결과는 그 개념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로 제시한 것 외에도, 이 척도의 문항들을 신체가치 척도의 문항들과 함께 요인분석한 결과는 평가소재가 조작성이나 편향성과 뚜렷하게 다른 차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조작성이나 편향성과 유의미 하면서도 그리 높지 않은 상관계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신체평가소재는 신체관련 소비행동에 관해서도 독자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통제소재에 대한 더욱 정교한 개념화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신체존중감을 체형(또는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을 체형존중감과 체기능 존중감으로 구분하고 이를 따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는 여성표본에서 .24, 남성표본에서 .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신체존중감을 두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또한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은 신체가치 측정치나 신체평가소재의 측정치와 서로 다른 상

관관계 양상을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표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즉, 체형존중감은 예상과 달리 신체가치나 신체평가소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여성표본에서만 체기능존중감이 신체가치나 신체평가소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적절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체형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며, 특히 신체존중감에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체기능존중감의 이론적 실제적 역할을 탐구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가치 척도와 신체평가척도, 신체존중감 척도는 기본적인 심리측정학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지만, 향후 연구를 통해 더욱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척도들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척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McKinley와 Hyde(1996)가 제안한 객체화 신체의식척도는 신체에 대한 경계(surveillance), 신체에 대한 통제감,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측정하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하위척도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 척도를 이용한 국내연구가 있기는 해도(예를 들어, 박은아, 2003), 연구의 표본이 100여명에 불과하며, 아직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제대로 표준화되지는 않았다. 쓸만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체조작성 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 모두 일반적인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재는 척도들과는 문항제작방식이 상당히 달랐다. 예컨대, 신체조작성 척도는 신체를 조작해도 되

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연스런 변화 외에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는가를 나타내는 두 문항을 함께 제시하고 이 중 자신의 생각과 더 일치하는 문항을 고르도록 강제선택형 양분문항으로 구성했고, 신체 편향성 척도는 외모와 건강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양극단에 배치하고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는 일종의 의미미분척도로 제작하였다. 이는 신체조작성 척도의 경우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의도였고, 신체편향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강과 외모는 실제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상호 관련성이 높은 현상이기 때문에 개별문항으로 제작하는 경우 각 척도 모두에서 천장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척도를 모두 리커트방식으로 제작하고 비교함으로써 더 나은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조작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장기기증, 장기 이식, 사체처리방법 등에 대한 태도와 의도에서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그리고 신체편향성의 평균치가 척도의 중간점수인 15점에 훨씬 못 미치는 10점 수준이어서 체기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해준다.

이와 관련해서, 신체이미지 분야에서 개발된 많은 외국 척도들이 있는 바, 이들 척도의 특성을 한국에서 확인하려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일부 척도들이 번안되어 사용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제대로 따져 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체관련 개념과 소비행동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가치나 신체평가 소재, 신체 존중감 수준은 일부 마스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신체가치 중 조작성의 평균치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척도의 중간값인 4점보다 낮으며, 10대(M=4.00)와 20대(M=4.07)는 약간 높지만, 30대(M=3.32)와 40대(M=2.52)는 상당히 낮았다. 이런 현상은 신체가치 편향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서 전체평균은 척도의 중앙값인 15점 보다 상당히 낮아서 체기능을 체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M=8.58)와 40대(M=6.79)가 10대(M=14.46)와 20대(M=12.26)에 비해 체기능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하면 집단간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0대와 20대 여성의 경우는 다른 연령이나 성별집단에 비해 신체조작성의 평균치가 척도의 중간값을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신체편향성의 경우도 중간값을 넘어서거나 거의 근접하는 평균치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체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의 신체가치에 관해 특징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의 자의적 통제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체형보다는 체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이나 연령집단별 차이를 들여다 보면, 이같은 신체 가치에 관해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매우 커서, 신체를 자의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체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향후 빠르게 확산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체존중감의 경우, 전체평균치를 보면, 체형존중감은 21.3, 체기능존중감은 20.4로 두 측정치 모두 중간값인 20.0을 넘고있다. 추가분석결과, 여고생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체형과 체기능 모두에서 존중감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기는 했지만, 평균치가 심하게 낮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사회에서 체형이나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 낮지는 않을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고생집단의 상대적으로 낮은 존중감은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즉, 여성들의 낮은 신체만족도와 존중감,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비적응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들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은 10명 중 5-6명이 소비한 경험이 있으며, 다이어트를 시도한 비율은 남녀모두 40%정도였다. 여성 중에서 점이나 흉터제거술을 한 경험율은 28%였고, 피어싱 17%, 쌍커플 1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체관련 소비가 상당히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체가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체가치 관련 개념들이 신체관련 소비행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로 신체가치 척도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 개념을 신체관련 소비행동의 연구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에서 다른 개념들과 소비행동의 관계에 관한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검증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는 척도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시 기상조라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 신체 관련 개념으로 소비행동을 설명하기 모형설정과 검증은 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그 경우에도 사용한 척도들의 다양한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신체 이미지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신체관련 소비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 관한 다양한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모형에서 신체가치와 신체평가소재, 신체존중감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광고산업 (2002). 광고주 동향. 사단법인 한국 광고업협회, 31-67.

김병준 (2001). 한국관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 도구 개발. 한국 스포츠심리학회지, 12(2), 69-90.

김성태 (1990). 경 사상과 한국 문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특강).

김완석,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한국 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김완석, 김해진 (2005). 여성의 신체이미지지가 이 신체관련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6(3), 27-40.

김은실 (1997). 여성의 건강관리와 육체 이미지의 소비문화.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문옥표 편), 275-3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달구넷. <http://www.dalgu.net/55815/w-11.htm>.

박은아 (2000). 광고모델과 소비자의 신체이미지 차이에 따른 광고효과.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2(2), 35-56.

성영신, 박은아, 우석봉 (1999). 광고에 나타난 신체가치관 연구. 광고연구, 43, 29-55.

송현동 (2004). 한국장례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인류학, 37(2), 90-113.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오상화, 나은영 (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3(2), 141-158.

유창조 (2000). 여성의 beauty seeking. 시장을 움직이는 힘, 여성의 심리. 한국 소비자광고심리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63-81.

이경화, 류은정 (2001). 여대생의 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레이저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1(8), 51-60.

이누야마 요시유키 (2005). 청소년의 생명윤리와 사생관: 자살, 임신중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9(1), 85-108.

이누야마 요시유키, 최일호, 한성열(2001). 한국인의 내세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1), 77-96.

이승희, Rudd, N. A., & 김재숙 (2001). 바디이미지연구(제 1보):한미 여성의 이상적 미, 바디이미지와 외모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69-980.

- 이정모 (1997). 심리학방법론의 개념적 재구성: 서양심리학방법론의 시사.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추계 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55-180.
- 정명선 (2003). 성인여성의 신체적 매력성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165-179.
- 주간코스메틱. <http://www.csmt.co.kr/html/sulmun/sulmun.asp?idnum=125>
- 최경숙 (2000). 하이틴 잡지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규정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황진숙 (2000). 노년층 남녀의 의복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의 관계. *한국 의류학회지*, 23(1), 159-169.
- Bartky, S. L. (198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iarchy. In I. Diamond, & L.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61-8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ed.), *Knowledge, Education and Social Change*. London: Tavistock.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2000)에서 재인용).
- Cash, T. F. (2002). Beyond traits: Assessing body image state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163-170). New York: Guilford.
- Cash, T. F. (2002).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8-46). New York: Guilford.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April, 30-37.
- Goffman, E. (1963).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 New York: the Free Press.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2000)에서 재인용).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173-178.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Harre, R. (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Kleck, R. E., & Strenta, A. (1980).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negatively valued physical characteristics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61-873.
- McKinley, N. M. (2002). Feminist perspectives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55-62). New York: Guilford.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Nezlek, J. (1999). Body image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7, 793-817.
- Pruzinsky, T., & Cash, T. F. (2002). Understanding

- body images: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12). New York: Guilford.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tice, E. (2002). Body image and bulim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04-311). New York: Guilford.
- Thompson, C. J.,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39-153.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 C.: APA.
- Turner, B. S. (1987). *Medical Power and Social Knowledge*. London; Sage.
- Turner, B.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the body. In M. Featherstone, M. Hepworth, & B. Turner (ed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 Sage.
- Turner, B. S. (2002). 몸과 사회(임인숙 역). 서울: 몸과 마음. (원본 출판년도는 1996).
- Wiederman, M. W. (200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87-294). New York: Guilford.
- Williamson, D. A., Stewart, T. M., White, M. A., & Yore-Crowe, E. (2002).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on body imag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47-54). New York: Guilford.

Body-related values and consumer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for scale development

Wan-Suk Gim

Ju-hwa Cha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Based on the fact that previous researches on the body image concepts, this research extended the findings on the previous concepts of the body image for consumer behavior-usually normal behavioral domain. This research aimed to 1) develop scales which can capture the value dimensions about the meaning of the body beyond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nd 2) test whether the scales could be used in consumer behavior-usually normal behavioral domain- researches. After examining the psychometric features of the body-value scale,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body-value scale was good enough to be accepted as research tools for body value in ter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urthermore, it was useful in predicting body-related consumption behavior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further work needs to be done were discussed.

key words : body-related values, body image, body esteem, body-related consumption behavior

<부록> 신체가치 척도의 문항

신체조작성

1. 사람의 신체는.....
 - ① 부모가(또는 하늘, 신이) 물려주신 것이어서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된다
 - ② 나의 신체는 나의 것이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고쳐도 된다
2. 신체란.....
 - ① 마음이 갖든 신성한 것이다
 - ② 하나의 기계와 마찬가지로이다
3.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 ①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②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안 늙게 하는 것이 좋다
4. 사람의 외모는.....
 - ① 타고나는 것이어서 일부러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
 - ②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것이 좋다
5. 사람의 건강은.....
 - ① 타고나는 것이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 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6. 신체란.....
 - ①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어서 원래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 ②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좋다
7. 자신의 체형(외모)가.....
 - 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 ② 마음에 안들면 개조하는 것이 좋다
8. 사람의 신체는.....
 - ① 그 자체로 저마다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이다
 - ②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9. 타고난 신체의 특성을.....
 - ①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 ② 인위적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10. 사람의 신체를 통해.....
 - ① 그 사람의 특징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 ②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는 없다
11. 자신의 체형(외모)이 마음에 안든다면.....
 - ①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는 것이 좋다
 - ② 내 마음에 안들어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12. 나의 체형(외모)은.....
 - ① 내가 책임지고 마음에 들도록 가꾸어야 한다
 - ② 일부러 바꾸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신체편향성

-2 -1 +1 +2

1. 아름다운/멋진 몸매를 갖는 것 |__|__|__|__| 건강한/튼튼한 신체를 갖는 것
2. 건강에 좋은 음식 |__|__|__|__| 미용에 좋은 음식
3. 몸매 관리 음식 |__|__|__|__| 체력보강 음식
4. 좋은 화장품 |__|__|__|__| 좋은 건강식품
5. 몸에 병이 나지 않는 것 |__|__|__|__| 몸매가 망가지지 않는 것
6. 좋은 피부를 갖는 것 |__|__|__|__| 좋은 근육을 갖는 것
7.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 |__|__|__|__| 탄력있는 피부를 가꾸는 것
8. 외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__|__|__|__| 신체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9. 신체가 건강한 이성 |__|__|__|__| 외모가 좋은 이성
10. 보약 |__|__|__|__| 다이어트 식품

KCSI